모두가 행복한 죄수들

-아르토 파실린나, 유쾌한 천국의 죄수들, 노마드북스, 2006.을 읽고 쓴 서평

/ 전북여고 1학년 반 0000@naver.com

‘유쾌한 천국의 죄수들’은 비행기 결함으로 인해 48명의 사람들이 무인도에 불시착하여 그들끼리 도우며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 등 각 국의 서로 다른 사회에서 서로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은 다 함께 또 다른 작은 사회를 꾸리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다보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축소시켜 놓은 것 같아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그렇다면 48명으로 이루어진 이 작은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여자 26명, 남자 22명 또 다른 사회 공동체

어느 날 호주로 향하던 비행기 한 대가 날개 결함으로 인해 추락하게 되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무인도에 불시착하게 된다. 여자 26명, 남자 22명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무인도라는 낯선 곳에서 자신들이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힘을 합치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들만의 새로운 사회를 꾸려나가기 시작한다. 물론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사회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서로에게 맞춰나갈 수는 없었다. 처음에는 책임감도 없었고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으므로 부족한 음식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고,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려 들지 않아서 동료의 장례식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났다. 그러나 그들은 48명의 구성원들을 이끌어나갈 지도자를 뽑고 캠프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인 전체 회의를 열어 선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구성원들 하나하나의 의견을 듣기 시작하였고 점점 더 살기 좋은 공동체로 바뀌어간다.

그들만의 유토피아

어느 날 갑자기 무인도에 불시착하게 된 48명의 조난자들은 살아가기 위해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중대한 일은 다 같이 결정하면서 하나의 원시 공산주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그 말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서로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이 아예 없을 뿐더러 모든 소유물은 공동 소유, 게다가 아주 기본적인 물품들도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것이다. 분배가 노동에 비례하거나 노동 없이 분배 받는 일 또한 없다. 사실 그들은 유럽 어떤 사회주의 국가들보다도 더 확실한 사회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툼 없고 욕심 없는 진짜 사회주의를 만들게 되자 더 이상 유럽의 거대한 자본주의 시장을 그리워하지 않고 오히려 비관하게 된다. 소설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죄수들'이라고 표현했다. 언제쯤에 풀려날지도 모르면서 풀려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죄수들 말이다. 그러나 초반에는 부정적으로 쓰이던 이 말이 시간이 흐르고 그들의 삶이 풍족해지자 '행복한 조난자들', '즐거운 천국의 죄수들' 등으로 변해 가면서 점점 그 의미가 바뀌어갔다. 오히려 전쟁과 높은 주택 보증금에 시달리며 온갖 질병과 사고들을 지긋지긋하게 달고 사는 바깥세상과 단절되었다는 것에 그들은 더없이 기뻐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후에는 구조를 위해 도착한 미국 함선의 구조를 거부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진다. 물론 구조대인 미국 해군들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사실 나도 그 동안 이렇게 무인도에 불시착하게 되어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소설은 많이 읽어왔지만 그 중에서 어떤 책도 무인도에서의 삶이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는 메시지는 던지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나는 당연히 그들이 결국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고,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거의 1년 만에 가까스로 구조대가 찾아왔는데도 끝끝내 구조를 거부하고 섬에 남고자 하는 사람들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문명으로 인한 편리함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고 분쟁 없는 사회였다. 그 오래 전 토머스 모어가 꿈꾸던 진짜 유토피아, 캄파넬라가 만든 진짜 태양의 나라를 조그마한 섬에서 그들이 이루어 낸 것이다.

부패한 현대 자본주의 비판

내가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사람들이 섬을 떠나기 위해 준비한 SOS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 공동체의 구성원 중 하나인 리브스가 섬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이 유럽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었다. 그는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제도들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오히려 유럽의 제도들이 섬에서 시행된다면 자본주의의 한계인 빈부 격차,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불만 초래로 체제 전복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유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나'를 설득하려 한다. 사실 리브스의 말은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 조난 당한 사람들 모두가 섬에서는 유럽의 자본주의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 사회주의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끼리 힘을 합친 결과, 알고 보니 전시 지역이었던 무인도에서 기관총이 난사되는 사건과 야생 원숭이들의 습격 등 많은 어려움에도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섬을 탈출하기 위한 SOS 프로젝트를 훌륭하게 성공시키는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한 중대한 일들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었다. 사실은 '유쾌한 천국의 죄수들'에서 가장 크게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부패한 현대의 자본주의 이념이다. 정작 막상 무인도에 떨어지게 되면 아무 필요 없어지는 것이 현대의 자본주의인데도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꽤 살기 좋은 환경의 사회를 만들어 낸 48명의 조난자들에 비해 지금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는 너무도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되어버렸다. 모두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여 모두의 이익을 위해 한마음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지금 우리는 겉으로는 공동의 이익을 챙기는 척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항상 자신만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사람들인 것이다. 혹은 소설 속 무인도처럼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함께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일 뿐이다. 어쩌면 이 점이 48명의 조난자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자 무인도의 유토피아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모습을 되돌아 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나 스스로조차도 이 소설 속 무인도의 조난자들만큼 순수하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 본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데에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책의 마지막에서 사람들이 모두 구조되고 난 후, 주인공인 '나'는 구조 전 섬에서의 삶이 더 좋을 거라고도 생각했었지만 막상 섬을 탈출하고 나니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현대 문명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장면을 보고 나니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을 떠나 사람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국 주위 환경일지도 모른다는 결론도 새롭게 낼 수 있었다.

유쾌한 천국의 죄수들

유쾌한 천국의 죄수들. 처음 이 제목을 접했을 때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그러나 책을 모두 읽고 난 지금, 이 소설에 이만큼이나 잘 어울리는 제목은 없을 것 같다. 무인도 속에 갇혀버렸지만 갇힌 것이 아닌 죄수들은 그들 손으로 행복을 만들어냈고 자신들이 몇 십년간 몸담아온 완성된 사회보다 더 훌륭한 사회를 만들어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고민하고 꿈만 꿔 오던 유토피아, 또 태양의 나라.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것만 같던 그 꿈의 세계를 그들은 서로 공생하자는 마음 하나로 손쉽게 이루어 버렸다. 나 또한 책을 읽으면서 지금 사회에서 벗어나 죄수들이 살고 있는 유쾌한 천국으로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